



한옥사진공모전 주관하는 한옥문화원장 장명희

“한옥은 유기체 같습니다. 집이란 매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함께 진화하고 있죠. 이전의 것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오늘날의 한옥이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옥은 고이고이 보전해야 할 문화재쯤으로 생각되었다. 서울에 있는 유명 한옥전시관을 가도 ‘올라가지 마시오’란 팻말을 먼저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전통가옥이 문화재로만 남겨질 경우 이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잊혀질 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위한 목적이나 정서적인 이유로 수십 년을 살아온 아파트 생활을 접고 직접 한옥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북촌에 있는 한옥문화원에

서 진행되는 한옥짓기 교육과정에는 전문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북촌에 있는 한옥문화원은 문화재로 인식되는 한옥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주거형태에 맞도록 진화하는 “오늘날의 한옥”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옥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놀랍도록 정교한 과학을 가지고 지어진 주거형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도 건축학과에 한옥에 대한 교육과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요즘들어 몇몇 학교에서 한옥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고 있지만 취업과 한옥의 교육영역에 대한 구분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교육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3년째 한옥문화원에서는 한옥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근래에 들에 한옥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건축가나, 디자이너, 건축학과 학생들 등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지금 한옥문화원의 2대 원장인 장명희 원장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란 것은 그 건축의 의미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화와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한옥건축가인 신영훈 선생님, 한옥사진전문가 고 김대백 선생님 그리고 몇몇 기능인 선생님들과 함께 보존해야 할 한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한옥에 대한 길을 모색하자는 의미의 한옥문화원을 만들었다. “한옥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아닙니다. 집은 한 가구의 역사를 모으고 그것이 모여 한 세기를 만들어가는 문화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한옥문화원은 문화재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금 지어지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발견하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기대

한옥문화원은 올해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첫 사진공모전 ‘한옥 사진공모전’을 가진다. 장명희 원장은 사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한옥과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한옥의 작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인 한옥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라질 것이라는 바람이다.

“건축사적으로 보면 건축물은 언제나 각 시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19세기 이후 여러 역사

제1회 한옥사진 공모전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

공식 홈페이지 : www.hanok-photocompe.or.kr
 참가대상 : 한옥과 사진에 관심 있는 모든 이
 참가비 : 무료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 2012. 04.16(월) 18:00
 시상규모 : 대상(국토해양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 원) 포함 총상금 2,000만 원

주최 : 국토해양부 주관 : 한옥문화원 후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일간신문, (AUF) 건축문화연구소, 주택지널, KOTRA

한옥사진공모전 요약

대상 : 한옥과 사진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접수 : 2012년 4월 16일 (월) 18시
 비용 : 무료
 시상 : 대상(국토해양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포함 총상금 2,000만원
www.hanok-photocompe.co.kr

적인 이유로 우리의 한옥은 길을 잃었습니다. 중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 한옥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남지만 장명희 원장이 바라보는 한옥의 미래는 밝다. 앞으로 해야만 될 일들은 많지만 장명희 원장이 바라는 것은 ‘한옥문화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 말한다. 제도의 틀에 묶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한옥문화원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한옥관련 건축문화나 정보들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길 바란다.

글 | 이주영